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제2외국어/한문영역 중국어 I 정답 및 해설

01. ① 02. ③ 03. ③ 04. ① 05. ② 06. ① 07. ④ 08. ③ 09. ⑤ 10. ④
11. ① 12. ⑤ 13. ⑤ 14. ③ 15. ② 16. ⑤ 17. ③ 18. ② 19. ② 20. ⑤
21. ③ 22. ③ 23. ④ 24. ④ 25. ④ 26. ② 27. ⑤ 28. ② 29. ⑤ 30. ①

[1~5] 발음 및 어휘

1. 해당 성모 / 운모 조합 한자 찾기

j q in ĭng

정답해설: 제시된 성모(j, q)와 운모(in, ĭng)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발음의 해당 한자를 고르는 문제로, 해당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 ① 请 qǐng ② 信 xìn ③ 顶 dǐng ④ 件 jiàn ⑤ 千 qiān

정답 ①

2.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성조 배열의 단어 찾기

서예는 중국의 한 전통(chuán tǒng) 예술이다.

- a. 사전(cí diǎn) b. 수영하다(yóu yǒng) c. 머리가 아프다(tóu téng)

정답해설: 각 단어의 정확한 중국어 성조를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밑줄 친 단어 '전통(chuán tǒng)'과 같이 '2성 +3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a, b)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3. 바른 한자 표기 판별하기

- a. 중국에는 56개의 민족이 있다.
b. 왕 선생님은 중국어를 아주 잘 가르치신다.
c. 난 그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d. 너희들 힘들지, 얼른 가서 좀 쉬어.
e.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다.

정답해설: a, b, d, e 의 바른 중국어 표기는 각각 a. 民族 b. 老师 d. 休息 e. 困难이다. 즉, 옳은 한자 표기는 c.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4.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찾기

- 5월의 학교, 공기 중에 꽃향기가 가득 다.
○ 토론회는 오전 9시에 시작했는데, 12시가 되어서도 아직 지 않았다.

정답해설: 다의어 '散'의 용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문맥상 첫

번째 빈칸에는 각각 ‘퍼지다, 분포하다’는 의미의 ‘동사’가, 두 번째 빈칸에는 ‘(모여 있던 것이)흩어지다, 떨어지다’는 의미의 ‘동사’가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다의어 ‘散’ 이다. 정답은 ①번이다.

- ① 散 sǎn 분포하다 / sàn 흩어지다, 떨어지다
- ② 占 점령하다, 차지하다
- ③ 开 열다 / 켜다 / (꽃이)피다 / 끓다 / 운전하다 / 시작하다 / 분리되다 등등
- ④ 发 fā 보내다 / 출발하다 / 발생하다, (뭔가가) 일어나다 / 재물을 얻다
fà 머리카락
- ⑤ 收 받다, 접수하다 / (원래 자신에게 속한 것을) 회수하다 / 한데 모으다.

정답 ①

5.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 찾기

- ☐ 난 누군가 했네, 알고 보니 너였구나.
- ☐ 이전의 tv 가 고장이 났어, 이걸 어제 새로 산 거야.

정답해설: 문맥상 (a), (b) 빈칸에는 각 각 ‘알고 보니’이라는 의미의 단어와 ‘이전의, 최초의’라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b) 가 수식하는 명사는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므로 ‘本来(추상적인 명사만 수식 가능)’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답은 (a) 原来 (b) 原来 ②번이다.

정답 ②

[6~10] 의사소통 기능

6. 제시된 글의 내용 완성하기

에너지 절약, 우리는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 !

- ☐ 컴퓨터는 쓰지 않으면 꺼버린다.
- ☐ 가까운 곳은 차를 타지 않는다.
- ☐ 사람이 나간 방엔 불이 밝지 않다.
- ☐ 엘리베이터를 적게 타면 더 건강하다.

정답해설: 제시된 글의 내용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찾는 문제이다.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표현은 ‘생활 속 에너지 절약’과 관련 있는 표현으로 ‘①번: 우리는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가 적절하다.

정답 ①

7. 대화 내용 완성하기

당신은 요리를 주문하세요, 제가 배달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 얼마 이상 주문하면 배달이 가능한가요?

A1 : 50위안 이상 주문하시면, 저희가 배달해드립니다.

Q2 : _____ ?

A2 : 고객님의께서 주문을 완료하신 후, 대략 1시간 후면 바로 배달해드립니다.

정답해설: 문맥상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넣어 대화를 완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Q2가 한 질문에, ‘대략의 배달 시간’을 알려준다. 즉,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④번: 집까지 배달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가 적당하다.

- ① 아이도 먹어도 되나요?
- ② 어느 웹사이트에서 요리를 주문하나요?
- ③ 얼마나 사야 좀 더 할인받을 수 있나요?
- ④ 집까지 배달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 ⑤ 요리 한 개는 몇 사람이 먹기에 충분한가요?

정답 ④

8. 제시된 그림을 보고, 글의 내용 완성하기

우리 게임으로 단어 복습을 하자. 이렇게, 네 명이 한 조고, 한 명은 앞에 서서,
_____, 그 세 명이 중국어로 그림에 있는 대상의 이름을 말해야 해.

정답해설: 제시된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찾는 문제이다. 그림의 내용에 부합하는 표현은 ‘게임 진행 방법’을 알려주는 ‘③번: 3명에게 그림을 보여주다’가 적절하다.

정답 ③

9. 대화 내용 이해하기

바이쉬에 : 나 감기 걸렸어, 내일 장담하건데 너랑 영화 같이 보러 못 가게 될 것 같아.
장잉 : 괜찮지? 물 좀 많이 마시고, 안 되겠으면 병원에 가.
바이쉬에 : 그 영화는 내가 줄곧 보고 싶어 하던 건데. 정말 미안해.
장잉 : 괜찮아. 너 좋아지면 보러가자.

정답해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읽고,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즉, 대화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⑤번: 바이쉬에는 내일 장잉과 영화를 볼 예정이었다.’이다.

정답 ⑤

10. 대화 내용 완성하기

A : 안녕하세요! 우릴 도와서 사진 한 장 찍어주시겠어요?
B : 그럼요. 준비되셨나요? 찍을게요.
A : 좀 기다려주세요, _____ .
B : 그러면, 사람이 너무 작게 찍혀요.

정답해설: 문맥상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넣어 대화를 완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A 가 한 요구에, B 는 ‘그렇게 하면 사람이 너무 작게 찍히게 된다’고 말한다. 즉,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④번: 뒤편에 있는 건물도 전부 (사진에 들어가게) 촬영해주세요’가 적당하다.

- ① 바람이 멈추고 나서 찍어주세요
- ② 앞쪽에서 몇 사람이 걸어와요
- ③ 머리 손질할 시간 제게 좀 주세요
- ④ 뒤편에 있는 건물도 전부 촬영해주세요
- ⑤ 저 손에 있는 물건을 옆에 두려구요

정답 ④

11. 대화 내용 완성하기

A : 너 우체국에 물건 부치러 가지 않았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B : _____ , 허탕 쳤어.

- a. 우체국 문이 닫았어
- b. 내가 물건을 잘못 들고 갔어
- c. 부쳐야 할 건 다 부쳤어
- d. 물건 하나 부치는데 몇 분 안 걸리지

정답해설: 문맥 상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넣어 글을 완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헛걸음 / 헛수고’와 관련한 표현은 ‘a , b ①번’이다. 정답 ①

12.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어제 축구 경기는 정말 훌륭했어!
B : 그러니까 우리 반 정말 잘 하더라.
A : _____ , 우리 두 골 다 너무 멋지게 들어갔어.

정답해설: 문맥 상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넣어 대화를 완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A와 B 두 사람은 모두 어제 축구 경기가 ‘훌륭했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빈 칸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⑤번: 무슨 말 하는 거야! / or 천만에!’이다.

- ① 맞아요
- ② 그러니까
- ③ 누가 아니라
- ④ 내 생각에도 그래
- ⑤ 무슨 말 하는 거야! / or 천만에!

정답 ⑤

13. 제시된 글의 내용 이해하기

대학을 다닐 때, 나는 학교의 숙소에 살았다. 네 사람이 한 방에 살았고, 우리 네 사람은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줄곧 그 방에서 살았다. 대학 졸업 후, 우리는 각각 각자의 직업을 찾았다. 비록 계속 만날 기회는 없지만, 우리는 자주 연락한다.

정답해설: 제시된 글의 내용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⑤번: 우리는 대학 졸업 때까지 같은 방을 사용했다.’이다.

정답 ⑤

14. 제시된 그림을 보고, 대화의 내용 완성하기

1998년	2018년
-------	-------

A : 봐, 20년 후 엄마와 아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자세로 사진을 찍었어.
 B : 정말 재미있다. 엄마의 머리카락이 하얘졌고, 아이들의 키가 컸고,
 제일 어린 아이가 엄마가 안아들 수 없을 만큼 자란 게 달라졌을 뿐이야.

정답해설: 제시된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찾아 대화를 완성하는 문제이다. 그림의 내용에 부합하는 표현은 ‘大(长大)성장한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인 ‘③번: 안아들 수가 없다’가 적절하다.

- ①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 ② 땅에 앉아서 보다
- ③ 안아들 수가 없다(무거워서 안아 올릴 수가 없다)
- ④ 아이들 볼 수가 없다
- ⑤ 그의 손을 잡고 있다

정답 ③

15. 문맥에 맞게 선택 문항 나열하기

A : 안녕하세요, 당신을 도와드릴게 뭐 있을까요?
 B : 10분 전에 제가 여기에서 책을 봤는데요, _____ .
 핸드폰 하나 못 보셨나요?
 A : _____ . 보세요, 이게 당신 거 인가요?
 B : 맞아요, 감사해요! _____ .

- a. 갈 때, 핸드폰을 가져가는 것을 잊은 것 같아요.
- b. 당신이 없었다면, 아마 핸드폰을 정말 분실했을 거예요.
- c. 제가 탁자를 정리할 때 핸드폰을 하나 발견했어요.

정답해설: 전체 흐름을 파악하여 주어진 a b c 세 개의 문장을 적절히 나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문맥상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대로 나열하면, ‘②번: a(문의)-c(찾아줌)-b(감사인사)’이 적절하다. 정답 ②

16. 대화 내용 이해한 후, 글의 내용 완성하기

○ 모두 함께 읽어보세요.
 리리 : 너는 운동하는 걸 좋아하니?
 리밍 : 응, 내가 싫어하는 운동은 없어, 나는 농구, 야구, 배구를 자주 하러 가.
 너 뭘 좋아하니?
 리리 : 나는, 그림 드리는 걸 진짜 좋아해. 주말만 되었다 하면, 밥 먹는 걸 제외
 하곤, 그림만 그려.
 ○ 위의 내용을 한 번 써보세요.
 리밍은 _____ , 그는 농구, 야구, 배구를 자주 하러 다니고,
 리리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며, 주말만 되면, _____ .

정답해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읽고, 문맥 상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넣어 대화와 일치하는 내용이 되게끔 글을 완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a)에는 ‘운동’과 관련해서 리밍은 ‘모두 좋아함’, (b)에는 리리는 ‘그림을 많이 그린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 | (a) | (b) |
|-------------------|-----------------------|
| ① 농구만 좋아 한다 | 학교에 가서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운다 |
| ② 아무 것도 할 줄 모른다 | 밥 먹는 걸 제외하곤, 공부만 한다 |
| ③ 구기 종목을 잘 한다 |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간다 |
| ④ 매일 늘 운동하러 간다 | 친구들과 함께 강가로 가서 논다 |
| ⑤ 무슨 운동이든 다 좋아 한다 | 많은 시간을 그림 그리는 데 쓴다. |

정답 ⑤

17. 대화 내용 완성하기

A : 요즘 그가 그렇게 바쁜데, 이 일 그가 잘 처리해낼 수 있을까?

B : 나도 그 점 이 걱정이 돼, 그런데 _____ .

나는 이번에도 그가 잘 처리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 a. 그는 늘 말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아
- b. 그는 자기가 말한 것에 아주 책임감이 있어
- c. 그는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
- d. 많은 일들이 그의 손만 지났다 하면 망했어

정답해설: 문맥 상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넣어 대화를 완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신뢰의 이유’와 관련한 표현은 ‘b, c ③번’이다. **정답 ③**

18. 글의 내용 이해하기

중국에서 자전거 공유는 이미 많은 도시에서 두루 인기몰이를 했다. (a) 만약 어딘가 가려고 하려고 하는데,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가 있다면, 타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편리했다. (b) 예를 들어, 사람들은 늘 사용한 후에 함부로 세워두거나 함부로 놔뒀으며, 많은 공유 자전거들이 세워진 채 타는 사람 없이 기다리고 있다. (c) 비록 자전거 공유가 많은 문제를 가져왔지만, (d) 만약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e) 자전거 공유의 내일도 더 좋아질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 자전거 공유 역시 사람들에게 문제는 남겼다.

정답해설: 제시된 글의 내용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적절한 위치를 찾는 문항이다. ‘전환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不过(그런데)’뒤에 ‘자전거 공유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내용’이 전개되었으므로, 들어갈 위치로는 (b) 가 적절하다. **정답 ②**

19. 제시된 글의 내용 이해하기

지진이 왔을 때는, 어떡하나요?

1. 교실에 있을 때는, 재빨리 탁자 등의 아래로 가서 숨습니다.
2. 흔들림이 멈추고 나서, 책가방을 머리위에 받치고서, 교실을 벗어납니다.
3. 조직적으로(팀을 이루어) 운동장 위로 이동합니다.
4. 엘리베이터를 타지마세요.

△△ 고등학교

정답해설: 제시된 글의 내용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창문’에 대한 얘기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②번이다.

- ①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나요?
- ② 창문을 열어야 하나요?
- ③ 언제 교실을 벗어나나요?
- ④ 조직적으로(팀을 이루어) 어디로 가나요?
- ⑤ 무슨 물건을 머리에 받치나요?

정답 ②

20.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오랜만이야, 어디 갔었어?
 B : 쿤밍에 놀러 갔었어, 돌아온 지 얼마 안됐어.
 A : 쿤밍은 어때?
 B : 쿤밍엔 괜찮은 곳이 아주 많아. 내가 갔을 때, 날씨가 정말 좋았어,
 춥지도 덥지도 않고. 그리고 맛있는 게 아주 많았어.

정답해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읽고,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즉, 대화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⑤번: B가 쿤밍에 갔을 때 날씨가 좋았다'이다.

- ① B 는 쿤밍에 다시 갈 생각이다
- ② B 는 여름 방학에 쿤밍에 갔던 것이다
- ③ B 는 쿤밍에서 한 달을 살았다
- ④ B 는 어제 쿤밍에서 돌아온 것이다
- ⑤ B 가 쿤밍에 갔을 때 날씨가 좋았다

정답 ⑤

21.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이 책 너 읽어봤어? 요즘 아주 인기야.
 B : 당연하지. 난 줄곧 이 작가를 정말 좋아했어. 그녀는 수 년 동안 책을 써오고 있어. 좋은 밥은 늦을까 걱정하지 않는다, 예전에 그녀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그녀가 정말 유명해졌네!

정답해설: 제시된 대화문의 내용을 읽고, 밑줄 친 문장이 문맥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좋은 밥은 늦을까 걱정하지 않는다 = 맛있는 밥은 늦어도 괜찮다'는 것은 '좋은 결과는 늦어도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상응하는 정답은 ③번이다.

- ① 밥 먹는 거 너무 늦지 마라
- ② 하늘이 무섭지 않고, 땅이 무섭지 않다
- ③ 좋은 결과는 늦을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 늦어도 괜찮다
- ④ 무슨 일이든 다 너무 일찍 기뻐하지는 마라.
- ⑤ 재빨리 자신의 일을 다 마쳐야만 한다.

정답 ③

[22 ~ 26] 문화

22. 제시된 글의 내용 이해하기 - ‘소설가 심종문(선충원 : Shěn Cóngwén)’

선충원은 중국 현대의 유명한 소설가이다. 1902년 그는 호남성 봉황현에서 출생했다. 그의 소설은 주로 두 가지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농촌생활을 쓴 것이고, 하나는 도시 생활을 쓴 것이다. 이 두 가지 생활을 씌으로써, 현대 중국인의 생활 상황을 나타냈다. 그의 주요 활동 시간은 1930년 ~ 1940년대이다. 그의 소설 가운데 《변성》이 아주 유명하다.

정답해설: 제시된 글의 내용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③번: 수상 경력’이다. **정답 ③**

23. 대화 내용 이해하기 - 중국 요리 ‘토마토 계란 볶음’에 관한 설명

A : 이것은 중국인이 집에서 자주 하는 한 요리고, 토마토 계란 볶음이라고 해, 한 입 먹어봐, 맛이 어떤 것 같아?
B : 정말 맛있어! 나도 만들어보고 싶어. 너 어떻게 만든 거야?
A : 요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요리를 다 하는데 10분도 안 걸려. 우선 계란을 깨서, 후라이팬에 넣고 한 번 볶아. 그런 다음에 계란을 꺼내고, 토마토를 볶아. 마지막에 다 볶은 계란을 다시 토마토와 함께 잠시 볶아 주면, 토마토 계란 볶음 요리가 완성되는 거지.
B : 그렇게 간단해, 나도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지.

정답해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읽고,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즉,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은 ‘b(요리 방법 간단), d(중국인들이 흔히 만드는 음식) ④번’이다. **정답 ④**

24. 글의 내용 이해하고 해당 그림 찾기

우리 이 그림 한 장을 볼게요. 이 몇 마리의 물고기들은 정말 생동감 있게 그려졌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유명한 화가 제백석이 그린 것입니다. 그는 물고기 외에도, 또 꽃, 새, 말, 산 등을 그린 적이 있어요.

정답해설: 제시된 글의 내용을 읽고,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그림을 고르는 문항이다. 제백석의 그림 중 ‘몇 마리 물고기가 그려진 그림’은 ④번이다. **정답 ④**

25. 빈 칸에 적당한 단어 넣기 - ‘해음 현상’에 관한 글의 내용

최근, 중국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에 서로 사과를 선물하는 것이 유행한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하루 전 날을 ‘평안절’이라고 부르는데, ‘평안’의 ‘평’과 ‘평과(사과)’의 ‘평’이 _____ 이 같으므로, 사과로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다.

정답해설: 글의 내용을 읽고,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해음 현상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④번 发音(발음)’이다.

- ① 모양 ② 색깔 ③ 의미 ④ 발음 ⑤ 맛

정답 ④

26. 제시된 글의 내용 이해하기 - 중국의 친구 사이에 하는 ‘인사 표현’

김미영은 한국에서 중국어를 배울 때, 중국인들이 인사를 할 때 모두 ‘니 하오!’하고 말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녀는 중국에 가고 나서, 중국 친구 간에는 별로 ‘니 하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중국 친구가 그녀에게, ‘니 하오!’하고 비교하자면, ‘어디 갔었어?’나 ‘밥 먹었어?’가 더 친근하며, 친구 사이에 ‘니 하오!’를 쓰면 관계가 좀 멀어 보일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제 그녀는 어떻게 중국 친구와 인사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정답해설: 제시된 글의 내용을 읽고 그 글이 전달하는 중심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정답은 ‘②번 인사표현’이다.

정답 ②

[27 ~ 30] 문법

27. 부정부사 ‘不’의 위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는 (a) 손에 (b) 계속 (c) 핸드폰을 (d) 들고 (e)놓지 않는다.

정답해설: 수능 특강 180 페이지 연동문 (5) 예문.

앞 동사는 긍정형, 뒤 동사는 부정형인 경우의 연동문이다.

즉, 부정 부사 ‘不’는 두 번째 동사 ‘放’의 앞에 위치해야 한다.

정답 ⑤

28. 바른 문장 표현 찾기 - 명사‘刚才’와 부사‘刚’의 용법 차이 이해하기

- ① 그는 내일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아까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
② 우리 둘은 알게 된 지 막 일주일 되었다.
③ 막 시험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은 바로 모두 나가서 축구를 했다.
④ 내 컵이 왜 안 보이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⑤ 막 졸업한 학생들한테 있어서, 일자리를 찾는 일은 그다지 쉽지 않다.

정답해설: ‘刚才’와 ‘刚’은 의미적 차이는 크게 없지만, 품사적 차이는 크다. ‘刚才’는 ‘명사’이며, ‘刚’이 부사이므로, 동사 ‘认识’ 앞에는 부사인 ‘刚’을 써야 한다.

* 보충 - 刚才 : (지금으로부터 시간적인 거리가 조금 있음 - 조금 전, 아까

刚 : 막, 갓

정답 ②

29. 바른 문장 표현 찾기 - 겹어문의 올바른 이해

- a. 이 옷을 입으면 그녀는 더 아름다워진다.
- b. 나는 그들이 이 일을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 c. 한국 친구가 나한테 중국 문화를 한 번 소개해보라고 했다.
- d. 반장이 우리한테 수업할 때 잡답하지 말라고 했다.

정답해설: 겹어식 문장은 ‘요청, 사역(시킴 / 부림), 좋고 싫음’을 나타낸다.

바른 문장 표현은 ‘c,d ⑤번’이다.

- a. 这件衣服让她很漂亮。
: 부탁하거나 시키는 문장이 아니다. 단순히, 옷을 입으면 아름다워지는 것이므로, → (穿上)这件衣服她更漂亮了.
- b. 我让他们会知道这件事的。
: 겹어문에서 ‘조동사’의 위치는 첫 번째 동사 술어 앞.
그러므로, → 我会让他们知道这件事的.

동1 동2

정답 ⑤

30. 바른 문장 표현 찾기: ‘了’의 쓰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

- a. 우리 밥 먹고 가자.
- b. 그는 가격을 한 번 보고는, 좀 비싸다고 생각했다.
- c. 그는 숙제를 탁자위에 놓아두고, 한 마디고 말하지 않았다.

정답해설: 바른 문장 표현은 ‘b ①번’이다.

- a. 我们吃饭了再走吧。
: 동태 조사 ‘了’는 동사 ‘吃’뒤에 써야 한다.
‘走(가다)’동작을 할 때, ‘吃(먹다)’는 동작은 ‘완료’된 후임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동태조사 ‘了’ → 我们吃了饭再走吧.
- c. 他把作业放了在桌子上, 一句话也没有说。
: 동태조사 ‘了’는 결과보어와 함께 쓰일 시 결과 보어 뒤에 쓰며, 또한 결과보어가 있으면 생략 가능하다 → 他把作业放在桌子上, 一句话也没有说. 정답 ①